



설사·무기력·복부통증 등 동반시 심각한 질환



“우리 강아지가 토해요”

원인 다양... 위장관·비위장관질환 원인
구토 내용물·변 등 영상은 진료에 도움
만성위염은 식이요법과 함께 치료해야

동물병원을 찾는 강아지들 중에 가장 흔한 증세를 보이는 것이 구토다. 대략적으로 10%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다. 그만큼 흔하기도 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해 진료하는 수의사로서는 기존의 병력을 잘 청취하고 증상을 세심하게 관찰해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그리 단순하지 않은 않다.

구토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를 보면 먼저 ‘욕지기’를 느낀다. 하품을 하고 안절부절하고 침을 흘리는 것으로 개의 욕지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개는 침을 많이 생산하고 삼킨다. 그것은 위 속에서 위산을 희석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는 소장 윗부분이 강하게 수축하고, 이어 소장과 위의 경계부분에 있는 위의 유문 조임근이 수축한 다음 유문부(위의 밑부분)가 수축한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수축에 의해 소장 윗부분과 위의 유문부에 있던 내용물이 위몸통과 위

기저부로 밀려간다. 그 다음에 위와 식도의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위분문부(위의 윗부분)와 식도가 느슨해지고 복부근육과,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인 횡격막이 수축해 위를 압박하므로 위 속에 들어 있던 내용물이 식도를 통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 종종 보호자들이 구토와 가래를 내뱉는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토는 복부운동이 동반되고 가래는 목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카카’ 거러다가 내뱉는 것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구토를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해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크게는 위장관 질환과 비위장관 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 위장관 질환은 급성위염, 위장관 이물, 장충증, 위장관계양, 바이러스감염병, 음식알레르기, 무분별한 식이섭취 등이 있다. 비위장관질환에는 체장염, 복막염, 요독증, 자궁축농증, 부신피질기능저하증, 간부전, 요로폐색, 각종 종증 등이 있다. 개의 기존병력과 신체검사 결과에 기초해 간단한 처치와 약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내 강아지가 구토만 하고 평소와 같이 잘 뛰어 놀고 식욕이 정상이라고 하면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설사, 무기력, 복부통증(등을 구부리고 공중대거나 복부를 지긋이 눌렀을 때 힘을 주고 있다면 대부분이 복부에 통증이 있다) 등 다른 증상을 동반하면 심각한 질환에 걸렸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 구토했는지 변의 색깔과 형태는 어떤지 잘 확인해야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폰의 카메라로

영상을 찍거나 병원을 찾을 때 구토 내용물과 변을 가져와 보는 것이 진단에 보다 도움이 된다.

일상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평소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었거나 또는 먹지 말아야 할 이물질을 섭취해 구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 보호자의 부주의로 방치된 음식 또는 음식쓰레기를 섭취한 경우나 산책 시 보호자가 모르는 사이 땅에 떨어진 것을 먹고 구토하는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 장관폐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방사선촬영, 초음파검진 등으로 확인해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또 비정기적인 식사시간이나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는 위산분비를 촉진시켜 위를 자극시킴으로서 만성적인 구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평소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공복성 위액(위산의 과다 분비에 의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구토한다. 대체적으로 담즙이 섞인 노란색을 띤다.)을 토하거나 자주 토하는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만성위염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이요법과 함께 위염치료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인 구토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 탈수를 보정하고, 음식을 일정시간동안 해야 하는데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액을 투여하기도 한다. 구토를 조절한 후 대부분의 개에게 소량의 유동식을 경구로 급여하되 하루 이들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양을 늘려야 한다.



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

영화觀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김초엽 작가의 단편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읽고 있다.

이 단편집은 2019년 여름 출간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SF장르의 소설집으로 우리가 흔히 이 장르에 갖는 편견인 번쩍이는 금속성의 질감과는 반대로 부드러운 감촉의 서정성이 느껴지는 일곱 편의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스펙트럼’이라는 단편이 지난 해 영화 ‘별세’로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뜨거운 환대를 받았던 김보라 감독의 연출로 영화화 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스펙트럼’은 사고로 태양계를 떠돌던 생화학자가 외계 지성체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생명체와의 만남과 소통에 대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단편의 마지막을 읽어 내려갈 때 곁에는 마음이 떨컸던 것처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이 소설이 영화화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서 인지 자연스레 ‘별세’의 명대사가 떠올랐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 그 기쁜 일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누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영화 ‘별세’의 대사는 소설 ‘스펙트럼’의 정서와 감탄이 나올 만큼 많은 폴이어서 지난 해 문단과 영화계에 해성처럼 등장한 두 여성 창작자의 만남을 기다리는 일이 설레기만 했다.

SF장르를 특히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아가면서 이 장르가 주는 신비로움과 고독함, 우연성과 필연성 같은 감정과 상황들에 매혹되는 일이 잦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가장 철학적인 장르가 SF 장르가 아닐까 싶은데 영화계에서도 깊이 있는 감상을 요하는 작품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

‘스펙트럼’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는 드니 빌뇌브 감독의 2017년 작품인 ‘컨택트’다. 최고의 과학 소설에 수여되는 8



영화 ‘컨택트’의 한 장면.

개의 상을 석권한 작가 테드 창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이 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전세계에 나타난 의문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와의 기적과 같은 소통을 매혹적인 영상으로 담아낸 화 된다. ‘스펙트럼’은 사고로 태양계를 떠돌던 생화학자가 외계 지성체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생명체와의 만남과 소통에 대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단편의 마지막을 읽어 내려갈 때 곁에는 마음이 떨컸던 것처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이 소설이 영화화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서 인지 자연스레 ‘별세’의 명대사가 떠올랐다.

흥미로운 것은 김초엽 작가의 소설 ‘스펙트럼’을 비롯 영화 ‘컨택트’와 ‘그레비티’ 모두 여성인 주인공이 우주라는 공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SF장르물이라는 것이다. 최근 문단과 영화계에서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여성 서사물들이 꾸준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이 새로운 물결은 SF라는 장르와 만나 더욱 새롭고 놀라운 창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치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 눈부신 별의 흔적을 쫓는 것처럼 이 흐름은 신비롭고 아름답다. 아직 우리가 가지 못한 세계, 여전히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에 대한 창작자들의 항해와 긴 호기심의 여정 끝에 탄생한 놀라운 결과물들에 감탄과 존경을 표한다.

<김명현·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대통령표창

문성업
(제주특별자치도 방역관리팀장)

2020년 동·식물 방역방제 분야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동부축산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태우 외 임직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차대환 (2016-17년도 3대총재) **이문병** (2007-08년대 27대회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otary 국제로타리3662지구 한림로타리클럽
회장 황성윤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대통령표창

유재호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용담2동위원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용담2동위원회
위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국무총리표창

오정임
(한국생활개선회 서귀포시연합회장)

본회의 회원으로 열정적인 사회활동과 책임감으로 한국생활개선회 전국한마음대회에서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慈悲心으로 더 큰 精進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귀포불교자비봉사회
회장 변정철 외 회원일동